

발레·합창·국악 '향연'...광주만의 늦가을 '만끽'

●11월 광주상설공연

낙엽이 떨어지는 계절, 광주예술의전당이 11월 늦가을을 타는 관람객들을 위해 특별한 '광주상설공연'을 준비했다. 이달 광주상설공연은 광주시립예술단의 다양한 장르 공연부터 수험생을 위한 힐링콘서트까지 다채롭게 구성됐다.



타악그룹 '일쑤'

먼저 광주시립발레단이 지난 2일 '해설이 있는 발레'로 첫 무대를 장식했다. 코렐리아 2막과 3막 발레 클래스가 펼쳐졌다. 오는 30일에는 '호두까기 인형 하이라이트' 무대로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율동빈, 할리퀸, 무어, 스노우 파드 등 등으로 광주상설공연의 화려한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광주시립합창단은 9일과 16일 공연을 준비 중이다.

시립발레·합창·국악관현악단,

다양한 장르 공연 '눈길'

수험생 힐링콘서트부터

타악·판소리 가족극까지

다. 각각 '노래하다'와 '첫사랑'을 주제로 펼쳐진다. 9일 무대에서는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중 'O sole mio, This is the Moment' 무대를, 16일에는 '나 하나 꽃 피어', 'The Phantom Of the Opera' 등 곡을 선사한다. 성악가들의 풍성한 합창 노래들로 가을의 정취를 물씬 만끽할 수 있는 자리다.

23일은 '해를 품은 달'을 주제로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의 무대를 만나볼 수 있다. 우리 국악의 흥겨운 장단과 신명나는 가락으로 가을의 쓸쓸한 분위기를 날려버릴 이번 공연은 영화 '사도'와 '미션'의 테마곡을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간다.

15일 오후 7시에는 지친 수험생들을 위한 기획공연이 마련됐다. '젊은국악 K-stage'를 주제로 젊은 국악인들로 결성된 '뉴비스테이지'가 공연자로 나선다. 이들은 전통예술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녹여내 창의성과 대중성으로 예술세계를 구현·표현해

오고 있다. 새로운 청년 예술가들의 뜨거운 열정이 수험생들뿐 아니라 지친 이들에게도 전파될 예정이다. 이날 공연에서는 '번뇌', '살', '人', '미스터리' 등 무대를 펼쳐낸다.

매주 일요일에는 2024 광주상설공연 전통예술공연 작품 공모를 통해 선정된 타악그룹 '일쑤'의 광주노정기 '토선생 찾기'가 펼쳐진다. 우리에게 친숙한 고전문학 '별주부전'을 각색한 타악 및 판소리 가족극으로, 관객들은 지역 대표 명소들을 돌아다니는 별주부를 통해 광주를 여행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한편 2024 광주상설공연은 오는 12월22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오후 5시 광주공연마루(서구 상무시민로 3)에서 열리며, 모든 좌석(사전 예매)은 무료다. 자세한 일정과 예매 관련 사항은 티켓링크, 광주예술의전당 홈페이지 또는 전화(062-613-8379)로 확인할 수 있다. /최명진기자



'뉴비스테이지'

달리자, '심장이 뛰는 현장 속으로...'

ACC 야외전시 연계 8-9일 달리기·트레이닝 행사

젊은 세대에 인기 있는 스포츠를 접목한 특별한 야외전시 연계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오는 8-9일 ACC 야외전시 연계 행사 '심장이 뛰는 현장 속으로'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ACC에서 오는 24일까지 열리는 야외전시 '현장 속으로: 기억과 사건'을 연계해 지역 러닝크루 BGRC(Bitgoeul Running Crew, 비잘씨), 글로벌 피트니스 브랜드 F45와 함께한다.

ACC는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MZ 세대를 겨냥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예술작품이 주는 시각적 자극과 음악 리듬을 통해 참가자들이 운동의 몰입감을 높이고 전시 공간에서 색다른 에너지를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오는 8일 열리는 'BGRC와 함께하는 도심 달리기'는 전문 큐레이터 해설과 함께 야외전시 관람 후 전시 작품과 주요 공간을 배경으로 25km를 달리는 행사다. 장소의 특징적 지형과 지물을 활용한 스트레칭과 보강 운동으로 부상 없이 러닝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배운다.

이어 9일 진행되는 'F45 연계 그룹 트레이닝'은 야외전시 관람 후 '바람의 끝까지' 작품을 배경으로 예술극장 빅도어에서 진행된다. F45 프로그램은 유산소·근력·민첩성 및 코어 등 운동의 장점 등을 모아 게임 형식으로 운영된다. /최명진기자



루트머지, '아트날라리' 초청공연 성료

예술시민배움터 사업 일환...시민들과 문화적 감수성 향유

국악예술단체 루트머지(주)와 수강생들이 지난 2일 오후 빛고을시민문화관 일대에서 가야금 공연을 선보였다.

이날 공연은 2024 광주문화예술교육축제 '아트날라리-안녕! 하이로~' 행사 초청 무대로, 광주 시민들과 문화적 감수성을 향유했다.

가야금 전문강사(홍윤진·김다희)의 지도 아래 15명의 연주자는 아리랑, 도라지 민요 2곡과 임영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 가요를 선보여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날 공연은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문화재단,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주관하는 '2024 예술

시민배움터 지원사업' 일환으로, 프로그램 진행 후 성과공유 자리로 마련됐다.

이에 앞서 지난 6-10월 총 20회차에 걸쳐 교육 프로그램 종류 사운드 '가야금 꽃이 피었습니다'가 진행됐다.

가야금 비전공자인 20~60대 수강생들은 이번 프로그램에 대해 높은 만족감을 보였다.

이날 공연에 참석한 박윤희 수강생은 "육아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었다. 이번 교육으로 가야금과 친해질 수 있어 기쁘고, 연주할 수 있게 돼 성취감이 크다"고 말했다. /최명진기자

www.kjdaily.com 

◀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p>시내 지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p>지방 지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지사 061)278-0740 • 남문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시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산지사 944-0993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